

## 기독교인의 성인애착과 하나님애착 관계

이향숙 (좋은이웃교회)

### 국문초록

본 연구는 기독교인의 성인애착과 하나님애착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기독교상담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먼저 선행연구를 통해 Bowlby의 애착이론과 확장된 성인애착행동, 그리고 Kirkpatrick의 가설을 바탕으로 성인애착과 하나님애착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초기 양육과정에 형성된 애착유형의 지속성과 자아복원력에 의해 획득된 안정애착에 대한 연구결과는 발달과정에 제 2의 대체애착인물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애착의 발달경로를 바꿀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Bowlby의 해석을 확장하여 Kirkpatrick은 하나님에 대한 기독교인의 종교적 행위를 애착행동으로 정의하고 두 가지 가설을 주장했다. 그가 주장하는 하나님애착과 성인애착의 일치가설과 결핍된 애착욕구를 하나님으로부터 채운다는 보상가설은 다수의 연구들에 의해 증명되었다. 이를 기초로 초기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형성된 기독교인의 불안정애착이 왜곡된 표상으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다는 결과라는 사실을 밝혔다. 이에 대해 본 연구는 하나님애착이론을 신학적 관점으로 조명하였고 그 결과, 애착에 대한 두 가지 개념을 발견했다. 첫째,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므로 애착행동 역시 창조적 구조 중 하나이다. 둘째, 인간은 하나님을 절대적 의존대상으로 인정하고 돌보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관계가 될 때 안정 하나님애착이라고 할 수 있다. 안정애착 관계에서는 하나님이 안전기지가 되고 안전한 안식처로 존재한다. 이를 전제로 하나님에 대해 불안정 애착 일치관계와 보상관계에 있는 내담자를 위한 기독교상담 방안을 모색하였다. 첫째, 불안정애착의 일치관계에 있는 내담자는 안정 하나님애착으로 재구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먼저 내담자 자신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식하기 위한 애착유형 분석과 내적 작동모델을 재고(再考)한다. 동시에 양육자와 관계에서 결핍된 애착욕구를 가지고 있는 내담자에게 재(再) 양육을 제공하여 돌봄과 지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불안정애착의 보상관계에 있는 내담자는 하나님과의 보상관계를 교정하기 위한 영적 돌봄이 필요하다. 보상관계 교정을 위해서는 성경을 활용하여 하나님의 존재성을 깨닫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돕는다. 다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위한 지속적인 영적 돌봄을 제공하여야 한다. 셋째, 양육초기에 안정애착 획득은 기독교인의 건강한 삶을 인도하는 원동력이며 하나님표상 형성의 기초가 될 수 있으므로 기독교 부모교육과 가정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교회공동체의 역할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기독교상담, 성인애착, 하나님애착, 일치관계, 보상관계

### I. 서론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타인과 계층에 따른 사회적 관계 속에 살아가야만 한다. 하지만 인간행동 유형의 다양성은 관계를 시도하는 사람의 예측을 어렵게 하고, 잘못된 대처행동은 원활하지 못한 관계를 초래하기도 한다. 또한 사회구조는 한 개인의 문제를 확장시켜 관계

를 맺는 모든 환경체제에 영향을 미친다. 이와 같이 인간발달에 영향을 주는 각기 다른 환경요인과 정신구조의 복합적 상호작용으로 형성되는 인간행동을 온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여전히 심리학을 비롯한 여러 학문분야에서 인간행동 연구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인간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규정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들 중 하나인 John Bowlby의 애착이론은 장기간에 걸친 실험적이고 과학적인 연구로 관계육구를 지향하는 인간행동의 다양성을 유형화하여 인간행동 이해에 도움을 주었다. 애착이론은 부모 또는 주 양육자와 아동과의 애착관계를 정의하고 더 나아가 성인의 낭만적 관계로 확장하였다. 뿐만 아니라 세대를 뛰어넘어 중년이 된 성인자녀와 노부모와의 관계에 까지 애착이론을 적용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Alison Krause & Beth Haverkamp, 1996). 이와 같이 애착은 그 범위가 점점 확대되어 인간을 이해하는 적절한 이론으로 자리매김을 하였다.

초기 양육과정에서 형성된 내적 표상이 개인의 행동을 결정짓고 대인관계 유형으로 발전한다는 애착이론의 핵심은 기독교인의 신앙행동과 애착행동을 탐구하는 연구를 촉진시켰다. Kirkpatrick(1998)은 이 연구의 핵심인물로서 애착의 네 가지 기준인 근접 지속성, 분리불안, 안전한 안식처 그리고 안전기지의 개념을 기독교인의 신앙행위에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그는 하나님에 대한 애착행동은 초기 애착모델과 일치되고 애착결핍을 보상하기 위해 하나님을 대체애착인물로 여긴다는 가설도 세웠다. Kirkpatrick연구의 주목할 점은 성인의 애착경험이 종교행동과 구원 문제와도 결부되어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에 근거한 하나님에 대한 기독교인의 애착행동 연구는 내담자의 종교성과 영적 상태를 이해하는 자료를 제공하고 기독교상담의 목적인 영혼구원과 신앙성숙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지금까지 하나님애착에 관한 연구들은 대부분 신학적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심리학적 연구이다. 하나님에 대한 기독교인의 애착행동을 심리학적 관점으로만 접근한다면 하나님을 지나치게 인격화하게 되고 그 본질이 왜곡될 수 있다. 개인의 내적표상과 일치된 하나님이 구원으로 인도하거나 성숙한 신앙생활로 인도한다는 것은 심리적 현상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사역자나 기독교상담자는 이러한 현상에 민감해야 한다. 왜냐하면 많은 기독교인들이 절대주권자인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내적표상인 하나님과 왜곡된 관계 속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애착의 이론적 관점으로 설명하는 기독교인의 신앙행동을 신학적 관점으로 재조명하고 하나님과의 바람직한 애착관계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제시하여야 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새로운 정의제시와 하나님과의 심리적으로 부적절한 애착관계에 있는 개인에게 기독교상담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II. 성인애착

### 1. 성인애착에 대한 개념

성인애착은 아동기애착과의 연결선상에 있다. Bowlby에 의해 정립된 초기 애착이론은 정신분석학을 시작으로 진화론, 동물행동학, 대상관계, 통제이론, 표상모델 등 다양한 이론이 합성된 것이다. 초기 애착이론은 애착행동에 대해 어머니 또는 주 양육자의 민감한 반응을 촉진하여 영아의 생존을 보호하게 된다는 생존기제의 개념으로 시작되었다. 애착의 일차적 기능은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발달을 돕는 것이다. 유아의 요구에 대해 양육자의

민감한 반응과 근접성은 이후 중요한 타인과의 강한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는 기초가 된다. 최근에는 유아의 보호확보를 위한 근접하기와 접촉추구와 같은 행동은 애착대상이 목표가 아니라 안정감의 상태를 목표로 하는 생존을 위한 본능적 반응으로 양방향적인 애착개념을 주장하기도 한다(Bowlby, 1976: 143). Bowlby의 이론이 현재와 같은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Ainsworth의 낯선 상황 실험 연구이다. 그녀는 Bowlby의 추상적인 애착개념을 객관적 측정을 가능케 하였고 애착유형을 구체화하였다. 낯선 상황 실험을 통해 나타난 영아의 다양한 반응 중, 특히 어머니와의 분리와 재결합 상황에서 보이는 영아행동을 토대로 안정애착, 불안전/회피애착, 불안정/양가적애착의 세 가지 애착유형이 분류되었다. 이후 뚜렷한 목표와 일관성이 없고 모순적인 행동을 보이 '와해/혼동형'(disorganized-disoriented)이 추가되었다(Main & Solomon, 1990).

애착이론의 핵심인 내적 작동모델은 Piaget의 인지발달 표상개념에 영향을 받았다. Bowlby는 신체 안의 생리조절체계처럼 중추신경계에 애착행동 조절체계가 내재되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애착의 역동성을 강조하는 내적 작동모델에 대한 개념을 확립시켰다(Bowlby, 2009: 136-146). 최근에 Bowlby의 이러한 개념을 인지과학 및 뇌 과학의 방법론을 적용하여 과학적 증명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Bowlby, 2009: 567-583). 내적 작동모델은 부모 또는 주 양육자와 아동 간에 형성되는 수많은 경험의 적응 과정에 의해 형성된 내적 표상이다. 내적 표상은 성장과정에서 타인에 대한 신뢰감과 자기가치관에 대한 일종의 신념으로 나타나며, 자기와 타인과의 관계모델이 된다. 일반적으로 아동기 경험에 의해 형성된 내적 작동모델은 성인기의 성격이나 대인관계에 대한 신념에까지 영향을 미쳐 평생 동안 작동하는 영속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Marrone, 2005: 101-104). 발달초기의 내적 작동모델은 변화가 가능하지만 발달이 진행됨에 따라 무의식적 측면들을 포함하는 관계 모델에 의해 고정된다(Brisch, 2003: 19). 안정적으로 고정된 내적 작동모델은 변화에 저항하며 성장에 따라 저항의 강도는 더 증가하게 되어 애착전략을 수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Bowlby, 2009: 544-548).

아동기 애착이 성인애착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Hazan과 Shaver에 의해서였다. 그들은 성인이 사랑하는 대상과 친밀감을 형성하고, 유지, 결별 그리고 재회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강한 정서와 유아가 애착대상을 상실하거나 분리과정에서 보이는 정서와 매우 일치하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Hazan & Shaver, 1987). 이를 토대로 Bowlby의 애착이론을 성인기로 확장하고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고 유지되는 과정을 애착과정으로 보았다. 성인애착은 성인이 자신에게 신체적, 심리적 안전감을 제공하는 특정한 사람들인 연인, 부모, 배우자 등에게 근접과 접촉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안정적 경향성이다(Main, Kaplan & Cassidy, 1985). 불행이나 고통스런 일을 겪을 때, 또는 갑작스런 위험, 재난과 위기에 직면했을 때 성인들도 본능적으로 평소 관계가 있는 신뢰할 만한 사람과 가까이 있고자하는 애착행동을 보인다. 그들의 행동은 아동이 애착대상으로부터 보호와 안식처를 추구하는 행동과 유사하다(Bowlby, 2009: 317).

초기 성인애착 연구는 성인기 애착유형과 기억에 의존한 아동기 애착유형과 관련성을 찾는데 초점을 두었다. 성인애착 연구자들은 성인과 아동의 애착유형을 비교하는 단기 및 장기적인 연구를 통해 아동의 애착상태와 어머니의 애착상태 사이에 일관된 연관관계가 있음을 밝혀냈다(Hamilton, 2000: Waters et al., 2000). 특히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세대에 걸친 불안정애착의 전이에 더 강한 영향을 준다는 보고도 있다(Fonagy, Steele & Steele, 1991).

애착이론가들은 어린 시절에 부모와 힘든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성인기에 안정애착유형으로 분류된 사람들을 발견했다(Phelps, Belsky, & Crnic, 1998; Crandell et al., 1997; Weinfield et al., 2000). 이후에 획득한 안정애착은 성장기 동안 부모 이외의 누군가로부터 안정감을 재획득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획득한 안정애착형 성인은 그들의 자녀들에게 부정적인 삶의 경험을 반영하지 않고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어린 시절 매우 심한 학대를 경험했을 경우에는 계속해서 불안정형으로 유지되는 경우도 있다(Weinfield et al.,). 하지만 획득된 안정애착형 성인의 경우, 성장기에 재획득한 안정감만이 그들의 애착유형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어린 시절과 사춘기 때 지지적이고 체계적인 어머니의 양육을 받은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초기 양육자와 관계에서 획득한 안정애착은 부적절한 환경변화로 불안정애착으로 전환되었다 하더라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자아복원력을 갖고 있다(Marrone). 애착초기의 확고한 안정애착 획득은 양육환경의 변화에 대해 통제수준을 조절하는 능력인 자아복원력(self-resilience)이 높다. 높은 자아복원력은 이후 안정되지 못한 양육환경에 의해 이탈한 발달경로로 진행되었다 할지라도 다시 최적의 발달경로로 복원할 수 있다. 또한 제 2의 애착인물에 의한 지지와 후원도 복원력을 갖게 되어 청소년 후기까지도 새로운 경로선택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Roisman과 동료들(2006)이 더 많은 자료와 새로운 연구방법을 도입하고 연구하였지만 불안정애착에서 안정애착으로 전환은 1000명 중 20명에 해당하는 2%에 불과하다는 결과에 직면하였다.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아동기 이후 성인의 애착유형의 변화를 지지하는 연구들은 자기와 타인대상에 대한 내적 작동모델이 이후 경험에 의해 변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 주었다. 이러한 사실은 부모와의 부정적 경험이 하나님과의 관계유형에 반영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새로운 신앙적 경험은 긍정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 Ⅲ 하나님애착

최근 애착연구의 새로운 관심사는 애착이론과 종교적인 경험과의 연결을 시도하는 연구들이다. 성인애착유형이 종교적 신념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와 함께 초기 양육자와의 애착경험이 종교적 안정성이나 개종과의 관계에 대한 실험적 연구들이 보고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성인애착행동에서 발전한 하나님애착에 대한 심리학적, 신학적 개념을 살펴본다.

#### 1. 하나님애착의 심리학적 개념

##### 1) 하나님에 대한 애착행동

Kirkpatrick(1992)은 개인이 자신의 정서적 배경을 바탕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나타나는 애착특성을 ‘하나님애착(attachment to God)’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는 10여 년 동안 애착이론이 종교적 신념의 여러 측면, 특히 지각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틀을 제공한다고 주장하여 왔다. 그는 애착이론과 종교적인 경험 사이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고 애착이론과 종교적인 인식과 영향이 행동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였다(Sim & Loh, 2003). 신앙과 종교행동으로 나타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성인의 낭만적 관계처럼 사랑을 전제로 한 심리적 애착과정을 그대로 반영하므로 하나님에 대한

감정적 유대경험을 애착행동으로 정의하고 하나님 또한 개인의 애착대상으로 기능한다고 하였다(최해림 2006).

애착행동의 네 가지 중요한 특성은 애착대상에 대한 근접 지속성, 애착인물로부터 분리 불안, 외부로부터의 위협이 있을 때 안전한 안식처, 외부 환경 탐색을 위한 안전기지이다. 이러한 유아의 애착특성과 하나님에 대한 기독교인의 종교행동은 다분히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첫째, 하나님에 대해 근접성을 추구한다. 애착초기의 영아는 애착대상과 접촉을 위해 울거나 팔을 들어 올리는 등의 행동을 한다. 이러한 행동은 성장과 함께 시각적, 언어적 접촉으로도 안정감과 평안함을 느끼게 되고 성인의 경우 단지 애착대상이 존재하다는 사실만으로도 만족함을 얻는다. 이것은 애착대상에 대한 근접추구가 육체적인 것에서 심리적인 접근으로 의존하게 되는 것이다. 성인의 하나님에 대한 근접추구 행동 역시 애착대상으로서 하나님을 향한 심리적 접근이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과 함께하며 지켜주시는 분이며 그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언제든지 응답해 주신다고 믿는다. 또한 기독교는 하나님에 대한 인성을 강조하였고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온 예수 그리스도는 추상적인 하나님개념을 확연하게 나타내보였으며 가까이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구체성(concreteness)을 보여 준다. 이러한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에서 하나님에 대한 근접추구 행동의 원인을 발견할 수 있다. Kirkpatrick(2005: 57-60)은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찾고 예배와 기도하는 행위에서 근접추구행동을 찾았다. 그들은 삶의 위기나 문제에 직면하면 과거보다 더 열심히 교회를 찾고 예배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고 한다. 특히 기도하는 행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와 접근성을 추구하는 대표적인 예로 제시하였다. Oates(1994: 237)는 기도는 인종과 종교를 초월하여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거나 하늘을 향해 들고 눈을 감거나 두 손을 맞잡는 등과 같은 행동을 보이는데 이는 만국 공용어라고 하였다. Kirkpatrick(2008: 807)은 방언(glossolalia)이 영아의 웅얼이나 유아적인 언어의 형태와 유사하게 들린다는 관찰연구를 근거로 방언을 할 때 머리 흔들거나 팔을 드는 행동 역시 영아의 애착대상을 향한 근접추구 행동과 유사하다고 하였다. Kirkpatrick과 Shaver(1992)의 연구에서는 불안형의 성인이 회피형이나 안정형보다 방언의 경험을 더 많이 한다고 보고하였다. 그들은 방언을 애착결핍으로 불안정애착을 형성한 개인이 애착욕구를 위해 하나님과 더 근접하기를 원하는 접근행동으로 보았다. 기도와 방언, 예배행위와 같은 종교적 행동을 애착이론의 근접추구 개념과 일치시켰다.

둘째, 하나님은 안전한 안식처이다. Bowlby(2008)는 애착체계를 활성화시키고 애착행동을 유도하는 세 가지의 상황을 언급하였다. 이것을 유아를 포함한 성인의 상황으로 일반화시키면 첫째, 피곤, 아픔, 나쁜 건강상태, 배고픔, 추위와 같은 개인적 조건이다. 둘째, 애착대상의 부재, 애착대상의 떠남, 애착대상으로부터의 분리의 위협과 같은 대상의 행방과 행동조건이다. 그리고 무섭거나 놀라게 하는 사건들의 발생과 같은 환경적 요인이 된다. Hood와 동료들(2003: 386-387) 역시 사람들이 대부분의 문제와 위기의 시간에 하나님께 돌아가는 경향이 있으며 이런 행동을 일으키는 요인으로는 세 가지 경우가 있다고 하였다. 첫째, 정신적, 육체적 괴로움을 일으키는 고통, 무능력과 같은 부정적인 삶의 사건들, 둘째, 친구들이나 친척의 죽음, 셋째, 삶의 역경을 이겨나가는 순간들이다. Kirkpatrick(1992)은 Bowlby와 Hood의 주장을 바탕으로 사람들은 세 가지 상황에서 하나님을 안전한 안식처로 여기며 찾게 된다고 하였다. 그것은 삶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위기의 시기와 개인의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리고 애착대상을 상실하였을 때이다. 이러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은 자신보다 더 강하고 문제해결에 대한 능력을 소유하였으며 접근 가능한 존재를 필요로 한다.

사람들이 고난과 위기의 시기에 종교로 전향한다는 것을 지지해주는 증거들은 아주 오래 전부터 많이 있어왔다. 사람들이 힘든 시기에 교회로 가기보다는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것은 주목해야 할 점이다. 그들이 교회의 동료들이나 소모임들, 또는 다른 의미 있는 대상들과 관계를 맺기보다는 애착행동의 대표적인 형태로 여기는 기도에 의존한다는 것은 교회와의 관계가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를 추구한다는 증거가 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불행한 참사나 건강의 위기와 같은 때에 더 기도하게 된다. 일상적인 요인들보다는 위기에 관련된 스트레스 상황이 종교에 더 많이 적용되는 경향이 있다.

애착대상의 상실이 애착행동을 일으키는 것은 애착체계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사건 중 하나이다. 부모나 배우자와 같은 주된 애착대상의 상실은 대리로 돌보아 줄 대상을 찾게 되거나 적어도 이차적인 애착대상에 대한 의지를 증가시킬 수 있다. Kirkpatrick(2005)은 이러한 때에 하나님은 대안적 애착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애착대상의 상실을 경험한 사람들은 대체 애착대상으로 하나님을 찾는다. 그들은 비록 내적 모델의 관계모형에 따라 하나님을 만나지만 그 하나님은 인생여정에 있어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계시며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쉬을 허락하시는 안전한 안식처이다(마 11:28).

셋째, 하나님은 안전기지이다. 애착이론에서 애착대상은 유아가 호기심과 탐색을 위해서 나아가갈 수 있도록 안전기지의 기능을 한다고 한다. 유아는 언제든 필요할 때에 달려갈 수 있는 애착대상이 있어야만 편안한 마음으로 탐색과 놀이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애착대상이 믿을 수 있는 안전한 기지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유아는 놀이를 하면서도 제대로 탐색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안전기지의 역할은 환경에 대한 자신감 있는 탐험과 매일의 삶 속에서 용기를 낼 수 있는 자원을 제공한다. Bowlby(1969: 202)는 애착대상이 원할 때마다 유용이 가능하다는 확신을 갖게 되면 그러한 확신이 없는 사람에 비해 긴장감이나 만성적인 두려움에 빠지는 경우가 훨씬 줄어든다고 하였다.

하나님이 정말 안전기지로서의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117명의 대학생을 상대로 연구한 Back(2006)은 하나님과 안정애착을 형성하고 있는 집단은 신앙여정 동안 평화를 누리며 기독교교리를 완전히 받아들였다. 또한 그들은 신학적 탐구에 열심을 보였으며 자신과 다른 신앙단체에게 관대했다. 반면에 회피적인 애착유형은 기독교교리의 거절과 관련이 있었고 불안/양가적 애착은 신학적 탐구가 적고 다른 신앙단체에 대해서 용인하는 경우가 적었다. 이는 불안정애착유형의 유아가 낯선 환경에서 어머니를 떠나지 못하고 탐색을 포기하는 행동과 유사하다. Back의 연구는 안전기지로서의 하나님은 안정감과 자신감을 제공한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하나님은 강력한 안전기지과 같은 역할을 하신다는 증거는 성경에도 잘 나타나있다. 시편 18편에서 저자는 하나님을 반석, 요새, 구원자, 피할 바위, 방패, 구원의 뿔, 산성으로 표현했다(시 18:2). Kirkpatrick(2005) 역시 시편 23편을 안전기지과 같은 하나님에 대한 대표적인 증거로 제시하였다.

넷째, 하나님과의 분리와 상실은 저항을 일으킨다. 애착관계에서 애착대상과의 분리는 불안을 갖게 하고 상실은 큰 슬픔을 일으킨다. 이 개념을 다른 개념과 달리 하나님에 대해 옮겨 놓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하나님은 인간관계에서 분리될 수도 상실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 분리되었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한 것일 뿐이다. Miner(2007)는 분리에 대한 불안이라는 개념은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과 관련하기에는 문제가 많지만 흔히 하나님을 멀리 계신 존재로 경험하는 사람들은 많다고 하였다.

Kirkpatrick(2005: 71-72)은 수용소에 있는 죄수와 전쟁터의 군인의 반응과 계속적 분리에 대한 아동의 반응이 동일한 노선, 즉 분노에서 절망, 포기의 단계를 거친다고 하였다.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강한 고통 중 하나는 위안을 얻고자 하는 안정적 기반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애착인물로서 기능을 할 수 없을 때이다. 기독교인은 때때로 하나님은 자신과 함께하지 않으며 멀리계시고 자신의 고통에 무관심하다고 생각한다.

인간애착대상과 마찬가지로 분리와 상실을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은 애착초기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내재화된 표상으로서 하나님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편재성에도 불구하고 안전한 안식처인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는 달리 인간의 속성을 하나님과 결합한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마 5:16, 45, 6:1, 6, 8:13), 어머니(갈 4:26; 계 22:17), 또는 신랑(사 49:18, 62:5)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처럼 기독교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애착모델로 설명하기에 적합한 종교이다. Kirkpatrick은 인간애착의 내적 작동모델과 종교성, 인지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직접적인 증거들을 조합하여 일치와 보상이라는 두 가지 가설을 제시하였다.

## 2) 하나님애착의 일치와 보상가설

### (1) 하나님애착의 일치가설

대부분의 성인애착 연구가 성인의 낭만적 관계에서 나타나는 애착행동과 양육초기에 나타나는 애착행동이 높은 일치율을 보였다는 것은 앞서 이미 밝힌바 있다. 마찬가지로 Kirkpatrick(2005)은 기독교인의 종교적 행동과 애착행동과의 유사성을 근거로 하나님애착의 이론적 토대를 세웠다. 게다가 그는 기독교인의 하나님애착이 초기 양육관계에 연결되어 있고 성인애착과 하나님애착이 일치관계에 있다는 일치가설(Correspondence hypothesis)을 주장하였다. 그는 내적 작동모델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과의 관계인식 사이에 나타나는 직접적인 증거들을 제시하며 가설의 타당성을 주장하였다.

일치가설은 아동의 초기 애착인물과 성인의 낭만적 대상과 동일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심리적인 애착인물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가정으로 시작한다. 즉, 안정애착을 형성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때 자신의 인간관계 대상처럼 함께해주고 반응해주고 사랑해주며 돌보아주는 애착인물로 기대한다. 반면에 불안회피형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멀리계시고 접근 불가능한, 또는 차갑고 거부하는, 아니면 단순히 존재하지 않는 분으로 지각한다. 성인의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믿음은 아동기 이전의 애착경험과 관련이 있으며, 애착유형의 개인적인 차이는 초기경험을 바탕으로 형성된 자신과 타인의 내적 작동모델의 결과이다. 그러므로 아동기 애착경험의 개인적 차이가 성인의 종교적인 믿음의 차이를 낳는다고 볼 수 있다.

애착주체의 내적 작동모델은 계층적인 방법으로 형성되며, 애착초기의 애착모델은 시간적 단계로 뗄 수 없는 애착대상에 영향을 미친다(Collins, & Read, 1994: 53-90). 초기애착경험에서 형성된 내적 작동모델은 모든 애착대상과 상호관련이 있으며 성인의 낭만적 애착대상의 내적 작동모델과 하나님에 대한 내적 작동모델이 한 개인의 애착행동에 동일한 모델로서 작동한다. 하나님이미지와 부모와의 관계에 관련된 연구로부터 시작된 성인애착의 횡단 연구와 종단연구들은 인간에 대한 애착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 사이의 일치에 대한 증거들을 보여준다. Kirkpatrick(1992b)의 첫 번째 연구는 부모와의 관계에서 자신을 안전애착으로 분류한 사람들은 불안정-회피애착으로 분류한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사랑이 많고 덜 통제하며, 접근가능한 분으로 보는 경향이 훨씬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와 타인의 내적

작동모델은 상호보완적인 방향으로 나타난다. 자아와 타인 모두에 대한 긍정적인 작동모델은 긍정적인 하나님이미지와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을 사랑이 많고 자애로우신 분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높은 자존감과 더 긍정적 자아개념을 가지는 경향이 있다(Kirkpatrick, 1998).

Kirkpatrick과 Shaver(1990)에 의해 이루어진 종단연구에서는 아동기 애착유형과 성인 종교변수와의 중요한 차이점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응답자의 아동기 동안에 어머니가 비교적 종교적이었을 경우에는 일치가 관찰되었다. 아동기에 어머니와 안정애착을 형성했던 응답자는 불안정애착 응답자에 비해서 종교적인 헌신과 교회출석의 수준이 더 높은 경향이 있었다. 게다가, 안정애착 응답자들은 인격적인 존재로서의 하나님개념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도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고 느끼는 경향이 더 많았다. 반면에, 자신의 어머니가 상대적으로 비종교적이었다고 말하는 응답자들에게는 반대로 적용되었다. Granqvist와 Hagekull(1999) 연구에서도 아동기의 애착모델과 성인기의 종교성과의 연관성은 오직 종교적인 부모를 둔 경우에만 적용되었다. 그들은 부모의 종교효과를 완화시키는 것은 애착에 있어서의 개인적인 차이라고 주장했다. 안정애착은 아동의 사회화를 부모의 종교 쪽으로 장려하는 반면에, 불안정애착은 아동의 종교성을 장려하지 못한다. Granqvist는 이 과정을 '사회화된 일치(socialized correspondence)'로 언급하였다. 하지만 그가 주장하는 일치는 개인의 종교적인 믿음과 자신의 애착유형의 안정성, 또는 이전의 애착경험의 일치가 아니라 개인의 믿음과 그의 부모의 믿음 사이의 일치를 의미한다(Kirkpatrick, 2005: 114). Granqvist(2002)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부모에 대한 애착안정성과 사회화 기반 종교성이 긍정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게다가, 안정애착으로 분류된 응답자에 의해 회고적으로 기술된 종교적 변화는 일찍 시작되나 점진적인 특징을 보였으며, 중요한 타인의 믿음을 채택하는 종교성은 일치되었다. 이것은 아동이 점차적으로 부모의 종교성을 닮아가는 전통적인 방법이며, 대부분의 상황에서 성인의 종교성으로 나아가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Granqvist의 이와 같은 사회화된 일치에 관한 해석은 애착이론과 종교심리학에 관한 연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Kogan(1984: 63)은 그의 저서 『아동의 본성(The Nature of Child)』에서 “애착의 중요한 결론은 부모의 기준을 채택하는 수용적인 아이로 만드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Matas(1978)와 그의 동료들 또한 애착인물의 결정적인 역할은 자신의 아이들을 가르치고 사회화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일치가설을 증명하는 연구들에 나타난 결과에서 부모의 종교성을 따르는 경우, 대개 자아모델과 타인모델의 명확성에 긍정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애착과 종교에 대한 다른 횡단적인 발견들과 일치했다. 즉, 자기모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믿음으로 스스로를 사랑받을 만한 사람으로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 많으신 분으로 보는 경향과 관계가 있는 반면에, 타인모델은 자신이 인격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존재로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 이것은 종교적인 영역과 대인관계 영역 간의 내적 작동모델이 일치한다는 사실로 귀착 되었다(Kirkpatrick, 1992b).

일반적으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하나님애착유형은 일치가설에 집중되어 있다. 하나님과 애착인물의 내적 작동모델은 서로 일치하는 경향이 있고 성인의 종교적 신념은 아동기 애착경험과 일치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안정적 아동기를 보낸 사람이 부모의 종교적 믿음을 채택하는 경향이 많은 것은 부모에게 긍정적으로 애착되어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 이러한 과정은 개인들의 종교적 믿음과 그들 부모의 종교적 믿음과의 관계를 예측할 수 있게 한다. 내적 작동모델은 이 과정을 촉진시키는데 있어 핵심적인 요인이지만 느리고 단계적으



로 작동한다.

(2) 하나님애착의 보상가설

Kirkpatrick의 보상가설(Compensation hypothesis)은 두 가지 연구결과에 근거하였다. 첫째, 부모에게 안전애착을 확립하는데 실패한 자녀들은 가족이나 애착욕구에 강하게 반응하는 타인과 같은 애착대체인물을 찾는다(Ainsworth, 1985). 둘째, 영아기의 안전애착이 부모의 죽음이나 질병, 이혼과 같은 중요한 사건으로 불안정애착으로 전환되었다 하더라도 제 2의 애착대체인물이 확립되면 비교적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NICHHD, 1997). Kirkpatrick과 Granqvist의 아동기 애착경험과 그 후에 발달시킨 종교적인 믿음 사이의 관계연구에서 청소년기나 성인기 동안에 ‘갑작스런 종교적 회심’(sudden religious conversion)에 대한 경험여부를 묻는 종교성척도 질문지에서 나타난 결과는 보상가설의 발판이 되었다. 그것은 불안정 부모애착을 가진 사람의 회심 비율이 안정 부모애착을 가진 사람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어머니와의 관계가 회피형에 해당하는 참여자의 44%가 회심을 경험했다고 한다(Kirkpatrick & Shaver, 1990). 이후 연구에서도 갑작스런 종교적 회심의 비율은 안정 어머니애착에 비해서 불안정한 어머니애착을 가진 사람들이 훨씬 더 높았다(Kirkpatrick, 1992a). 이것은 <그림 4>과 같이 부모의 믿음과 일치하는 종교적인 믿음을 성인기에 갖게 된다는 일치가설과는 상반된 결과였다.

	종교적인 부모	비종교적인 부모
안정 부모애착	더 종교적	덜 종교적
불안정 부모애착	덜 종교적	더 종교적

<그림 4> 부모의 종교성과 아동기 애착성이 성인의 종교성에 미치는 영향(Kirkpatrick 2005).

Granqvist(1999)도 불안정 어머니애착을 가진 사람이 성인기에 중요한 변화를 더 많이 겪는다는 Kirkpatrick의 연구와 동일한 결과들을 보고하였다. 그가 개발한 사회화기반 종교성척도((Socialization-Based Religiosity Scale: SBRS)와 감정기반 종교성척도(Emotion Based Religiosity Scale: EBR)를 사용한 일곱 개의 연구결과와 800명이상의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비교분석한 연구(Kirkpatrick & Granqvist, 2004)에서는 회심경험이 없는 참가자들은 사회화 기반 종교성 척도가 높게 나타났고 갑자기 회심을 경험한 참가자들은 감정기반 종교성척도에서 더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결과적으로 안정적인 아동기 부모애착은 사회화 기반 종교성과 관련이 있고, 이것은 일치모델과 일치하는 반면에, 불안정애착은 감정기반 종교성과 관련이 있었다. 이것은 보상모델과 일치했다. 또한 안정적 아동기 애착을 가졌던 성인의 종교심은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일찍부터 시작되고 점차적으로 진행되었다. 이것은 부모의 믿음을 채택하는 일치가설을 지지하였다. 반대로 불안정한 아동기 애착을 가진 성인의 종교심의 변화는 초기에 시작되기 보다는 나중에, 점차적이기보다는 갑자기 변화하였는데 이것은 보상가설을 지지하는 결과였다.

Kirkpatrick(2005)은 불안정애착경험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갑작스럽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지를 애착이론을 근거로 설명하였다. 그는 그들이 심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병들고 지쳐 있을 때, 또는 주된 애착인물에게서 분리나 상실을 경험할 때는 애착체계가 새로운 애착대상을 찾고 그 대상에 대한 근접을 추구하는 욕구가 높아진다. 그때 그들

에게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는 애착대상이 된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데 조건이 필요치 않고 비록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거절하거나 버리지 않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으로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애착개념은 보편적인 것인 동시에, 애착체계의 매개변수는 경험에 의하여 사람들마다 각각 다르게 자리 잡혀 있다. 그러므로 종교적인 믿음의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개인적인 차이가 있다.

Kirkpatrick(1998)의 또 다른 단기 종단연구에서는 연구에 참여한 대학생들의 전체적인 종교변수에 대하여, 자아모델과 타인모델의 중대한 주요 효과들이 발견되었다. 부정적인 자아모델과 긍정적인 타인모델의 결합인 불안/집착형 애착유형인 여학생이 불안/회피형이나 안정정보다 갑작스러운 회심이나 다른 종교적인 경험을 더 많이 하였다. 불안정적인 성인은 시간이 지나며 따라 잠재적으로 대체애착인물로서 하나님을 의존할 가능성이 높고, 이것은 자신의 낭만적인 대상으로부터 사랑과 돌봄을 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로 보는 것과 관계가 있다. 그들은 낭만적인 대상에게 버림받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그러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 친밀한 관계로부터 거리를 유지한다. 이러한 부정적인 자아의 내적 작동모델은 사실상 애착인물로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동기를 제공한다. 그러나 부정적인 내적 타인모델은 하나님을 대체애착인물로 여기고 다가가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도록 인도한다. 이들이 발견한 하나님은 안식처도 안전기지도 실제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멀리 계시고 가끔 불가능한 하나님으로 인식된다.

Kirkpatrick의 4년간의 종단연구(1997)에 나타난 결과에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찾았다고 가장 많이 보고되었던 불안형 집단이 그 후 4년 동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보고 또한 가장 많았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Kirkpatrick(2005: 141)과 Miner(2007)는 그들이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유형은 초기 애착경험들로부터 획득된 무의식 모델들을 경유하여 인식하므로 자신의 결핍된 애착욕구를 충분히 만족시키는 최적의 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이라고 하였다. 불안형 성인은 대체애착인물로서 하나님께 의존할 가능성이 가장 높음에도 불구하고, 내재된 타인모델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도록 인도한다. 그러나 이후 종교적인 회심을 경험하는 소수의 사람들은 어떤 극적인 경험으로 인해 갑자기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돌보시며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분으로, 도움과 위로가 필요할 때 함께 하시는 분으로 보게 된다. 애착인물의 신뢰성과 사랑의 성품에 대해 항상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생각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지만 불안정적인 경험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감정적으로 너무나 강력한 경험이 된다. 이러한 경험은 부모가 비종교인이고 불안정 부모애착일 경우, 종교성은 더 강력해진다.

하나님애착에 대한 Kirkpatrick의 일치와 보상가설 중에 일치가설은 종교심리학과 애착이론에서 주장하는 애착의 역동성과 내적 작동모델이 개인의 종교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과 동일한 견해의 일치를 보여준다. 이것은 애착유형이 부모로부터 전달되는 과정과 유사하고 이 과정은 개인의 종교성을 부모의 종교성에서 예측되는 강한 관계를 설명해 준다. 보상가설은 불안정한 애착경험을 가진 개인이 결핍된 욕구를 하나님에게서 찾고, 그중 일부는 사랑에 빠지는 것과 유사한 종교적 회심을 경험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불안정애착을 형성한 개인에게 하나님은 대체애착인물로서 기능한다는 애착이론에 근거한 설명이다. 그러나 그들이 경험한 회심에 대한 접근을 심리적인 측면으로만 조명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배제하는 세속적 입장이다. 그러므로 Kirkpatrick의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개인의 신앙과 종교에 대한 심리학적 고찰은 심리학적 환원주의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고, 개인이 만든

왜곡된 하나님과의 관계는 신앙관계가 아닌 심리적 관계이다.

## 2. 하나님애착의 신학적 접근

하나님애착 개념은 하나님을 내재된 표상으로 정의하였고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애착행동 또한 내재된 행동이 발현된 것으로 본다. 이러한 생각은 인간의 자기의식 속에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인간의 자기의식 속에 있는 하나님은 종교적 욕구 또는 인간의 본질을 초월적 존재로 투영한 것으로, 마침내 인간이 하나님을 만든 창조자가 된다(김군진, 1980). 초기 양육관계에서 형성된 내적 모델의 활동을 강조하는 애착이론적 배경에서 본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결국 인간 대 인간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모순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애착이론을 신학적 관점에서 수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애착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필요하다.

Bowlby(2009: 347-348)는 생애초기에 영아가 양육자의 보살핌에 절대적으로 의존하지만 성숙해지면서 다소 꾸준히 감소하는 것이 의존이라고 하였다. 그는 출생 시에는 애착행동을 전혀 찾아볼 수 없고 6개월이 지나서도 뚜렷한 증거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애착과 의존이 동의어라고 할 수 없다고 하였다. Bowlby의 '의존'에 대한 이해는 초기 행동주의적 설명으로 관찰 가능한 육체적 의존으로 제한하고 있다. Bowlby의 주장처럼 영아가 스스로 기거나 걷기 전에만 양육자와 절대적인 의존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절대적 의존대상이다. 절대적 의존은 하나님에 대한 본능적인 애착기능으로 성장과 동시에 의존에서 벗어나 독립을 향해 나아간다 할지라도 완전한 독립이란 존재하지 않는다(Davis & Wallbridge, 1997: 49).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절대적 의존은 자신의 존재를 위해 하나님에게 기대는 행동이 아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을 의미한다.

Kirkpatrick은 하나님애착이론에 대한 신학적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안의식에서 나온 거라는 Schleiermacher이론과 실존적이고 역사적인 분석에 근거를 둔 Kaufman의 이론을 도입하였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Kirkpatrick의 하나님애착이론의 신학적 기반의 부족을 주장한 Miner(2007)는 그 이유에 대해 세 가지 주요한 근거를 제시하였다. 첫째, 하나님애착이론은 인지사회모델을 환원주의로 바꾼 것이다. 둘째, 하나님애착 모델은 개인이 애착을 갖게 되는 하나님의 속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 셋째,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상호주관성을 내포한다는 것을 간과했다.

인간관계 중에 특히 부모-자녀 관계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잘 반영하고 있으며 하나님애착이론의 사실적 근거로 제시할 수 있다. 부모가 자녀에게 베푸는 무조건적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하고 부모에 대한 자녀의 온전한 의존은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인간의 태도이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애착이론을 근거로 할 때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절대적인 의존이야말로 안전 하나님애착이 될 것이다. Roberts(2002: 174-199)는 아동이 부모와의 분리로 나타내는 정서적 반응은 위협으로부터의 안전추구와 생존을 위한 보호의 존재로서가 아닌 양육자 즉 어머니 자체를 갈망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는 또한 애착은 안전한 안식처로서의 편안함보다는 사랑의 성격이 더 많다고 하였다. Roberts의 애착에 대한 시각은 기독교관점에서 바라본 인간애착행동에 대한 정의라고 할 수 있다. Roberts의 관점은 애착행동이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에게 부여된 행동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인간의 애착행동에 대한 새로운 접근은 애착의 질에 대한 책임을 애착대상이 아니라 애착주체에게 부과하게 된다. 변치 않는 사랑으로 일관된 애착대상인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별하여 멀리하거나 두려워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애착주체인 인간이 하나님을 두렵고 가까이 가기 힘든 분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애착에 대한 신학적 입장은 왜곡된 사고에서 시작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이해와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명확한 이해에 근거한 관계구조로 전환해야 한다. 또한 ‘안정 하나님애착’ 개념을 신학적 관점으로 재구성함으로써 인간이 만든 하나님표상과의 관계가 아닌 관계의 주권자이며 절대적 존재인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학적 구조를 가져야 한다. 그러므로 안정 하나님애착이란 하나님을 절대적 의존대상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명령하심에 순종하는 관계라는 새로운 신학적 정의를 제안한다.

#### IV. 불안정 하나님애착과 기독교상담 방안

본 장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기독교인의 애착행동이 초기 애착양식과의 일치와 보상관계에 있는 불안정 하나님애착을 가진 내담자에게 하나님과 관계를 새롭게 하고 안정관계로 재구성하기 위한 기독교상담 방안을 제안한다.

##### 1) 불안정애착의 일치관계와 하나님애착 재구성

성인애착과 하나님애착의 불안정 일치관계는 자기와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내적 작동모델이 그 원인이었다. 특히 Kirkpatrick에 의하면 타인모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불안정애착 일치관계에 있는 내담자를 위한 기독교상담 방안은 내적 작동모델 재고(再考)와 재(再)양육 경험을 위한 돌봄을 제안한다.

##### (2) 하나님애착 유형에 따른 내적 작동모델 재고

Kirkpatrick의 일치가설에서는 아동기 애착경험은 성인의 종교적 신념에 영향을 주며 대체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애착경험과도 일치되었다. 또한 부모와의 안정애착 관계에 있는 사람은 부모의 종교적 믿음을 채택하였다. 이것은 개인의 종교적 믿음과 그들 부모의 종교적 믿음과의 관계를 예측할 수 있게 한다. 하나님애착이론을 적용한 기독교상담 방안은 개인의 하나님과 관계에 그 핵심이 있다.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과 불안정애착관계에 있는 개인은 자신의 어려움에 무관심한 하나님으로, 또는 도움을 받지 못함에 대한 원망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중국에는 하나님의 존재성까지 부인한다. 상대적으로 하나님과 안정애착관계는 동일한 상황에 직면할 때 먼저 안전기지인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도움을 요청한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애착관계는 개인의 행동반응을 예측할 수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유형에 따라 안전기지와 편안한 안식처가 되거나 회피하고 부인하는 애착대상이 된다.

지승희(2000: 2)는 상담초기에 내담자의 애착유형 분석은 내담자의 종교성과 영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그에 적합한 상담전략을 계획하여 효과적인 상담관계를 형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하였다. 마찬가지로 기독교상담에서 내담자의 하나님애착 유형분석은 하나님과의 관계이해뿐 아니라 더 나아가 구원전략을 위한 초석이 된다. 같은 맥락으로 최영민(2001)은 기독교상담에서 내담자의 영성과 종교성 평가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는

내담자의 종교성과 영성 평가는 상담자로 하여금 내담자의 종교적 배경과 가치관을 보다 잘 이해하고 공감하여 더욱 섬세하게 도울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이러한 평가로 상담과정에서 영적 개입을 위한 방법을 찾을 수 있고 동시에 심리적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는 것도 필요함을 강조했다. 유향순(2008: 131)은 상담 전에 내담자의 종교성 탐색은 차별화된 상담 및 교육의 효과를 준다고 하였다.

내담자의 영적 문제를 진단하는 종교성 척도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은 결국 진단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회복하기 위함이 그 목적이라고 하겠다. 그동안 하나님과 관계성을 평가하기 위해 종교성향척도(Intrinsic-Extrinsic Orientation Scale: IEOS)나 단순 항목으로 구성된 척도를 사용했으나 최근에 Beck과 McDonald(2004)가 하나님에착 질문지를 개발한 후 하나님에 대한 기독교인의 종교성을 보다 직접적으로 알게 되었다. 이후 질문지를 활용한 McDonald와 동료들(2005)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영성이 낮은 가정과 과잉 보호, 또는 너무 엄격하거나 권위적인 부모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회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종교적인 가정이라도 부모와의 부족한 친밀감은 자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회피하는 불안정 하나님에착을 형성하는 원인이 되었다. 하나님에게 불안정애착을 형성한 대부분의 개인은 양육초기에 유기불안, 상실, 학대 등과 같은 부적절한 양육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경험들은 내적 요소로 구조화되어 자기와 타인을 신뢰하지 못한다. 그들은 자신에 대해 만족감이 없고 타인에 대한 낮은 신뢰감으로 자신은 사랑과 보호를 받을 가치가 없고 다른 사람은 자신에게 사랑과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믿는다(Bartholomew & Horowitz, 1991). 또한 불안정애착을 가진 개인들은 교회공동체에서 체험하는 종교경험도 부정적인 경향이 많다. 그들은 타인과 건강한 관계유지를 어려워하고 자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도 자신에게 아무 의미도 주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객관적으로 하나님이 사랑과 섭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하나님을 느낄 수 없고 자신은 교회로부터 소외되어있다고 생각한다(최재락, 2004). 요약하면, 효과적인 상담을 위해서는 상담초기에 측정도구를 활용하여 내담자의 하나님에 대한 애착을 분류하고 각각의 유형특성에 따라 적합한 상담전략을 계획한다. 하지만 기독교 상담은 단지 애착유형을 분류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애착의 적합성도 정당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Kirkpatrick에 의하면 부정적 내적 작동모델은 하나님은 사랑이 없고 통제하고 진노하는 분으로 인식되어 있었다. 특히 타인모델이 부정적이면 하나님과 불안정애착관계일 가능성이 많았다. 그러므로 내담자의 내적 작동모델을 재고하여 현재 하나님과 불안정애착관계를 맺게 하는 잠재된 요인을 분석한다.

### (3) 안정 하나님애착 재구성을 위한 재 양육경험

한 개인이 애착초기에 확고한 안정애착을 획득하였으나 양육환경의 변화로 인해 불안정 애착유형으로 전환되었으나 최적의 양육환경이 다시 제공되면 안정애착으로 재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제 2의 애착인물에 의한 지지와 후원은 그에게 내재된 자아복원력을 활성화시켜 다시 안정애착관계로 전환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애착의 이론적 조망으로 접근을 시도하는 기독교상담은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재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았다. 하나님과 불안정애착을 형성한 개인에게 제 2의 애착대상에 의한 재 양육 과정은 안정 하나님애착으로 재구성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관계하신다. 상처받은 내담자가 상담자와의 관계 속에서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은 내담자를 영적으로 성숙한 기

독교인이 되게 한다. Reinert(2005)는 하나님과의 안정된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지속하면 낮은 자존감과 수치심이 개선된다고 하였다. 전요섭(2007: 36)은 “돌봄의 사역은 내담자의 사고와 행동에 있어서 세속화를 막거나 전환시켜 성경적 인식으로 재구성시키는 활동이다.” 라고 하였다. 왜곡된 하나님이미지를 가지고 하나님과 불안정애착관계에 있는 내담자를 안정 하나님애착으로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양육 과정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연구자는 내담자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안정애착을 획득하는 것을 돕기 위해 기독교상담자의 재 양육과정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재 양육을 위해 상담자는 내담자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 내담자의 유형분석이나 과거의 경험에 의한 내적 구조이해와 더불어 내담자에 대한 영적인 측면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 인간의 영적과 정신적 측면은 전인적 인간의 각각의 측면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는다. 그러므로 인간을 전인적인 존재로 볼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다. 내담자의 현재 상태가 미성숙하고 부적절한 의식 속에 있다하더라도 상담자는 내담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로 보아야 한다. 상담자가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행동은 내담자로 하여금 상담현장을 떠나게 되는 원인이 된다. Carlson(1988, 63)은 내담자와의 진정한 교류를 위해서는 의미 있는 상담관계를 형성해야 하며, 이 관계를 위해 내담자에게 권위나 자격을 내세우는 것은 바람직한 상담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하였다. Collins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선택적, 통제적 존재로 인식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간상호관계로 설명하였다. 하나님과의 안정적 관계를 위해서는 상담자와의 관계 또한 안정적이어야 한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존재로서 내담자를 이해할 때 상담관계는 수평적 관계가 되고 도움을 주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닌 함께하는 관계가 된다.

둘째, 재 양육을 위해 상담자는 대체애착인물로서 안전기지의 역할을 감당한다. 상담과정에서 상담자의 안전기지 역할은 초기 양육환경에서 결핍된 욕구와 사랑이 제공되는 재 양육이 이루어 질 수 있다. 불안정 유형의 내담자는 하나님은 멀리계시고 자신의 어려움에 관심이 없고 그 존재성마저 의심한다. 그들의 왜곡된 인식의 변화를 위해 상담자의 안전기지로서의 역할 감당은 자신의 억압된 감정과 복잡한 정서를 표현할 수 있게 한다. 뿐만 아니라 남에게 드러낼 수 없는 약점이나 비밀도 개방함으로 문제해결에 대해 쉽게 접근할 수 있다. 그러므로 상담자는 하나님의 성품을 실제화 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반영하여야 한다. 내담자의 성장배경인 가정에서 충족되지 못했던 정서적인 뒷받침과 사랑의 환경을 상담자가 제공할 때 내담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서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대변해주고 실제로 행함으로서 보여준다. 이것은 내담자의 정서적, 영적인 면을 돌보아주는 사실상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는 재 양육과정이다. 하지만 어린 시절 양육환경에서 시작되어 내재되고 고착된 부정적인 자기와 타인에 대한 신념을 변화시키는 것은 쉽지 않고 인내를 요구하는 과정이다. 내담자에 대한 상담자의 거짓되지 않은 사랑과 지속적인 후원은 왜곡된 관계를 회복시키는 지름길이다. 초기 부적절한 관계가 만들어낸 하나님표상도 돌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하나님의 진정한 형상을 대면하게 된다.

셋째, 재 양육을 위해 상담자는 내담자의 신앙성장을 도모하고 그를 위해 교회공동체의 도움을 활용해야 한다. 하나님애착의 일차관계는 불안정애착의 근원을 초기 양육과정의 부적절함으로 본다. 내담자에게 제한된 시간에 제공하는 돌봄만으로 오랜 시간 내적 작동모델에 의해 고착된 관계유형을 하나님과 안정관계로 변화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McMinn

과 Phillips(2001: 127)는 자기와 타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왜곡된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재구성을 위해 상담자의 노력뿐만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신앙공동체의 협력적 도움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상담자의 노력이 모든 상담과정에 전제될 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의존관계인 안정 하나님에착으로 전환될 것이다.

## 2) 하나님과 보상관계 교정(敎正)을 위한 영적 돌봄

### (1) 보상관계 교정을 위한 성경사용

불안정애착을 형성한 사람들이 심리적이나 육체적으로 심한 상해를 입거나 애착인물과의 분리나 상실을 경험하게 되면 대체애착인물로 하나님을 찾는 보상관계가 된다. 하나님과 보상관계로 기독교를 채택하고 교회를 출석하였다면 이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이것은 교회공동체의 책임이며 기독교상담자의 중요한 역할이다. 이 책임과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보상관계는 만족스런 애착대상이 되지 못하고 다시 분리관계가 되어 교회를 떠나게 된다. Kirkpatrick(1997)은 하나님에 대한 갑작스런 회심경험을 동반한 보상관계로 이어졌지만 이후 하나님을 떠난 사례의 원인을 밝혔다. 그들이 회심을 통해 만난 하나님은 초기 애착경험들이 내재화하여 만든 표상이므로 결핍된 애착욕구를 충분히 만족시키는 최적의 조건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Kirkpatrick은 애착의 보상적 관계로 불안정애착유형의 개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은 감정기반 종교성과 관련이 있었다. 그들이 경험했던 회심이 감정에서 기인하였다면 그것은 심리적인 현상일 뿐이다. 단회적인, 갑작스런 회심경험으로 온전한 기독교인으로 탄생하는 것은 아니다. 회심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전과 완전히 다른 새사람으로 태어나는 최초의 회심경험 후에도 계속해서 일어나는 지속적인 과정이다(Oates, 1999: 158).

하나님과 보상관계에 있는 내담자에게 기독교상담은 애착대상인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구성해야 한다. 하나님에 대한 애착이 Bowlby의 주장처럼 단지 생존을 위한 안전에 대한 욕구라면, 애착형상인 하나님은 오직 보호자로서만 존재할 뿐이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애착을 상호관계에서 찾는다면 다른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 예컨대, 근접을 위한 시도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닮기 위한 것이고, 선하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전한 기지가 된다. 또한 인간은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할 때 분리불안을 느끼게 된다. 기독교상담에 있어서 하나님애착에 대한 이러한 접근은 하나님의 존재성과 인간행동을 이해하는 근거가 되고 하나님과 인간은 절대적 의존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한다.

기독교상담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도록 인도하는 것이며 내담자는 이 관계로 인하여 현재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Collins, 1982: 44-45). 그러므로 하나님과 관계를 위해서는 그 관계대상에 대한 지식이 우선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속성을 알지 못하는 불안정유형의 내담자가 하나님을 단지 인간애착대상의 대체 인물로 보았기 때문에 다시 떠나가게 되는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성, 즉 믿음은 말씀 들음으로 난다고 가르친다(롬 10:17). 성경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존재성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공고하게 한다.

Crabb(1993: 61)은 심리학이 인간의 심리적 문제에 대한 통찰은 주지만 인생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며 인생을 어떻게 살 수 있는가를 결정하는 권위 있는 답변과 생각을 위한 범

주를 제공해 주기에 충분한 것은 성경뿐이라고 하였다. 또한 그는 공허히 여기는 마음으로 인간의 죄를 지적하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알려주고, 그 해결책을 받아들이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성경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여러 가지 문제들로 진정한 삶을 빼앗긴 이들에게 문제를 극복하고 본래 창조주가 인간에게 허락한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상담의 목적과 일치한다.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관계적인 존재로서 효과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의 지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관계개선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시작한다. 관계개선은 자신의 내적 구조를 변화시키는 것으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한다. 이것은 상담의 시작이자 끝이며 필수 조건이다. 성경은 이러한 것을 충족하는 지침서이며 관계 속에 살아가는 삶을 위한 교과서이다. 때론 직접적이고 명시적인 대답을 주지 않더라도 인생의 문제에 적절한 대답이 어떤 것이지를 생각할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을 제공해 준다는 면에서 성경은 충분하며 권위를 갖는다.

바울은 ‘성경은 영생을 얻게 하는 지혜를 주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에게 유익을 주며,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히 구비시키는 모든 것이 들어있다(딤후 3:15-17)’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한다. 그러므로 보살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찾은 내담자에게 기독교상담자는 하나님과 관계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고 있는 문제를 성경을 통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하나님과의 안정애착을 형성한 기독교인은 당면한 문제에 대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여긴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내려놓음을 추구한다. 하지만 불안정애착은 대인관계에서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들은 타인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함으로 타인과 관계 맺기가 어렵고 하나님은 두려움과 불신의 대상으로 여기게 된다. 하지만 성경은 그들에게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빌 4:6), 그리스도의 평강을 소유하도록 격려한다(롬 15:13). 사도 바울은 인간이 허망한 것을 쫓다가 총명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을 떠난다고 하였다(엡 4:17-18). 하지만 마음을 새롭게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도 강조하였다(엡 4:23-24).

부모와의 관계에서 부적절한 경험은 심리적 외상이 되고 하나님을 왜곡하여 하나님과 관계에 영향을 준다. 하나님과 안정적 관계를 위해 이러한 상처 입은 경험에 대한 해석의 변화는 마음을 새롭게 한다. 성경은 자신에게 상처를 입힌 자를 용서할 때 자신의 죄도 그리스도에게 용서를 받는다고 하였다(고후 13:2). 그러나 용서는 일회적으로 완성되는 것은 아니며 의식적으로 되풀이해야 하는 심리적 과정이다. 용서는 가해자를 이해하고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는 단계에서 완성된다(홍근미 2010: 162-163). 가해자를 불쌍히 여기고 다시는 분노나 적개심을 품지 않으며 사랑하기까지 계속적인 과정이 용서이다(고후 2:8). 그러나 용서는 가해자에 대한 태도변화 이전에 자신의 죄 고백과 회개를 통해 용서의 간구 및 사죄의 확신을 갖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럼으로 새로운 구조로 자아와 타인을 인식하고 대인관계의 개념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재구성의 절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성경을 통한 하나님애착의 재구성 과정은 내담자의 왜곡된 하나님을 바로잡는 과정이 될 수 있다. 인간의 존재성을 알고, 그리스도의 상담을 본보기로 하여 성경을 도구로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인간에게 성령에 의지하여 상담하여야 한다. 전요섭(2007: 48-51) 또한 왜곡된 인식의 전환을 위해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시각으로의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그는 이 과정이 쉽지 않은 힘든 과정이지만 상담자의 노력을 촉구하였다.



Wimberly(2005: 27)는 이러한 재구성 과정은 내담자가 의식하지 못하지만 상담초기에 이미 시작되며 내담자의 하나님표상을 탐색하는 것은 재구성을 위한 결정적인 작업으로 성경 사용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불안장애착유형의 개인들은 자신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경험에 기반을 둔 사적인 믿음의 체계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개인적 경험은 주관적인 것이고 암시의 힘에 의해 쉽게 영향을 받는다. 그러므로 모든 교리와 경험은 주관적인 생각이 아닌 객관적인 진리의 표준인 성경에 의해 검증되어야 한다(Collins, 1982: 85-86). 기독교상담자는 절대적 기준이자 지식의 원천인 성경의 권위를 가지고 명확한 지침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것은 내담자의 문제를 완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가능케 한다.

## (2) 영적 돌봄에 의한 하나님과의 관계회복

하나님과 불안장애착관계에 있는, 특히 보상관계로 회심한 내담자에게 기독교상담자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존재임을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성을 경험케 한다. 보상관계에서 절대적 의존관계로의 전환은 하나님과 관계회복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것은 계속적인 영적 돌봄을 필요로 한다. 단회적 회심경험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먼 여정을 온전히 갈 수 없으며 끊임없는 인내와 노력이 뒤따른다. 과거의 불안장애착경험을 하나님에게 적용하는 일치관계에 있는 내담자와 마찬가지로 보상관계에 있는 내담자도 재 양육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들에게 있어서 강조되어 지는 것은 영적 돌봄이다.

Benner(2010: 24)는 “영적 돌봄이란 인간의 심층 그리고 총체적 차원에서 잘되도록 돕고 그의 내면세계와 관련하여 문제를 회복시켜 주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Benner의 영적 돌봄의 정의는 보상관계에 있는 내담자를 위한 상담자의 역할을 분명하게 한다. 권면적 상담을 주장하는 Crabb(1977: 22-24)은 내담자인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기고 봉사하는 진정한 자유인이 되도록 권면하고, 궁극적으로 순종을 통해 주님을 닮아가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따라서 상담자는 내담자와 하나님과 관계회복을 위해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주님을 닮는 삶을 위한 돌봄을 제공하여야 한다. 돌봄은 상호적(mutual)인 관계에 의해 이루어진다. 상호적 관계의 가능성은 진정한 사랑의 출발에 있다. 하지만 돌봄의 과정에서 돌봄의 가능성을 위협하고 방해하는 요인들이 존재한다. 특히 불안을 지닌 사람들은 남을 돌보는 능력의 상실 혹은 부족함을 경험한다(박은규, 9-28) 돌보는 자에게 이러한 병리적 불안이 존재하거나 개인적인 편견, 차별주의에 사로잡혀 있으면 용기와 자기 확신이 없어 남을 돌볼 수 없다. 돌보는 자 스스로도 자신의 능력과 한계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영혼을 돌보는 자는 다른 사람에게 치유를 제공하기 전에 자신이 먼저 영혼 돌봄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다. 영적 돌봄을 제공하는 기독교상담에 있어서 상담자의 영적 요인은 내담자를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도하는 길잡이와 같다. 돌봄의 상호성은 상담자의 영성과 내담자의 영성과의 교감을 필요로 한다. 상담자의 절대적 진리를 찾는 영적 능력은 내담자의 문제를 영적인 시각으로 초점 맞추고 그 방법을 진리 안에서 모색한다. 그것은 기도와 예배와 성경공부, 등의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치료와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받게 하는 것이다(전요섭, 2007: 28).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 돌봄에 대한 접근은 인간의 무한한 가치에 대한 확신에 기초한다.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되면 차라리 연자뱃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막 9:42)는 영혼의 가치를 확증하는 말씀이며 또한 그 영혼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는 말씀이다. 따라서 하나님께 위탁받은 상처 입은 내담자를 책임과 사랑으로 돌보는

관계는 사랑하시는 하나님, 함께하시는 하나님과 절대적인 의존관계인 안정 하나님애착을 갖게 할 것이다. 결국, 영적 돌봄에 의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사랑을 기초한 돌봄 위에 영혼이 세워지면 하나님과의 안정된 관계로 전환되고 그 관계는 나아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의 성장을 이끌게 된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라는 속담이 있다. 한 영혼이라도 실족케 되는 것을 원치 않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상담방법과 상담자가 필요하다. 그러나 상처 입은 영혼을 돌보는 사역의 필요성에 앞서 예방적 방안을 모색하여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을 장려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 V. 결론

Bowlby에 의해 정의된 애착이론은 Hazen과 Shever에 의해 성인의 낭만적 관계를 바탕으로 한 성인애착 연구로 확장되고 성인의 신앙행동과 애착행동의 유사점을 근거로 하나님애착 이론과 그에 대한 두 가지 가설이 Kirkpatrick에 의해 제시하였다. 그가 제시한 하나님애착의 일치와 보상가설은 기독교인의 심리적 신앙상태를 이해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고 더 나아가 기독교상담에도 그 적용가능성을 부가하였다.

먼저, 하나님애착 이론을 기독교 상담과의 적용 가능성을 시도하기위해 심리적, 신학적 관점에서 조명하고 이론에 대한 재 정의를 제안하였다. 신학적 관점에서의 재 정의는, 두 가지의 결론에 도달하였다. 첫째, 애착행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에게 부여된 창조적 구조이다. 하나님을 돌봄의 대상으로 보고 하나님과 근접을 유지하고자 하는 행동은 애착의 내적 구조(내적 작동모델)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행동이다. 둘째, 안정 하나님애착이란 하나님과의 절대적 의존관계이다. 애착이론의 기초가 되는 부모-자녀 관계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잘 반영하고 있으며 하나님애착이론의 사실적 근거로 제시할 수 있다. 부모가 자녀에게 베푸는 무조건적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하고 부모에 대한 자녀의 온전한 의존은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인간의 태도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절대적인 의존행동을 안정 하나님애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은 애착의 질에 대한 책임을 애착대상이 아니라 애착주체에게 부과하게 된다. 하나님애착은 애착대상인 하나님이 인간을 구별하여 멀리하거나 두려워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애착주체인 인간이 하나님을 두려움과 가까이 가기 힘든 분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하나님애착에 대한 새로운 정의에 근거하여 하나님과의 불안정애착으로 확고한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내담자를 위한 기독교상담 방안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이 제안에는 몇몇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이 연구는 외국의 문헌과 실험연구를 배경으로 한 문헌연구로 일반화 하는데 제한점이 있다. 하나님애착의 보상관계에 적용되는 불안정 하나님애착에서 안정 하나님애착으로 변화를 모색하는 구체적인 요인분석에 대한 연구와 하나님애착을 측정하는 도구를 활용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 참고문헌

- 전요섭, 박기영 (2008). 『기독교상담학자』. 서울: 쿤란출판사.
- 전요섭 (2007). 『기독교상담과 신앙』. 서울: 좋은나무.
- 전요섭외 11인 (2004). 『복음주의 기독교상담학』. 서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 정옥분, 정순화, 황현주 (2009) 『애착과 발달』. 서울: 학지사.
- Barry A. & Connolly, J. *The Practice of Spiritual Direction*, 김창재, 김선숙 역(2003) 『영적 지도의 실제』. 서울: 분도출판사.
- Benner, David G. *Care of Souls: Revisioning Christian Nurture and Counsel*. 전요섭, 김찬규 공역(2010). 『영혼돌봄의 이해』.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 Bowlby, John. *Attachment*, 김창대 역 (2009). 『애착』, 서울: 나남출판사.
- Brisch, Karl H. *Treating attachment disorders*, 장휘숙 역 (2003). 『애착장애의 치료』, 서울: 시그마프레스.
- Buber, Martin. *Ich und Du*. 김천배 역 (2001). 『나와 너』.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 Crabb, Lawrence J. *Understanding People: Deep Longings for Relationship*. 윤종석 역.(1993). 『인간이해와 상담』. 서울: 두란노.
- Davis, Madeleine & David Wallbridge, *Boundary and Space*. 이재훈 역. (1997). 『울타리와 공간』.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 Holmes, Jeremy. *John Bowlby & Attachment Theory*, 이경숙 역 (2008). 『존 볼비와 애착이론』, 서울: 학지사.
- Marrone, Mario. *Attachment and interaction*, 이민희 역. (2005). 『애착이론과 심리치료』, 서울: 시그마프레스.
- McMinn, Mark R. *Psychology, Theology, and Spirituality in Christian Counseling*. 채규만 역. (2001). 『심리학, 신학, 영성이 하나 된 기독교상담』, 서울: 두란노.
- McMinn, Mark R. & Timothy R. Phillips, *Care for the Soul: Exploring the Intersection of Psychology & Theology*, 한국복음주의기독교상담학회 공역.(2006). 『영혼돌봄의 상담학』,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 Oates, Wayne E.. *The Psychology of Religion*. 정태기 역 (1999). 『현대종교심리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 Wimberly, Edward P. (2005) *Using Scripture in Pastoral Counseling*. 김진영 역. 『목회상담과 성경사용』. 서울: 한국장로교 출판사.
- 홍근미. (2010). "중년여성 분노의 다면적 분석을 통한 기독교상담 방안." 박사학위논문: 성결대학교 대학원.
- 김균진 (1985) "하나님형상에 대한 현대 신학적 해석." 대한기독교서회. 『기독교 사상』 제 29집(3). 157-78.
- 박은규 (2000). "참된 돌봄의 재발견." 목원대학교신학연구소. 『신학과 현장』 제 10집9-28.
- 지승희. "회피형 내담자가 지각하는 상담 과정 및 변화 요인 연구."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00.
- 진미경 (2006). "영아애착유형과 어머니의 애착표상 유형에 대한 연구." 한국아동학회. 『아동학회지』 27(6). 69-79.
- 조성국 (2001). "기독교상담을 위한 기독교 인간학," 『기독교상담 연구회 자료집(1)』 고신대 기독교상담 연구회편.
- 최영민. (2001). "기독교상담에서 종교성과 영성의 평가," 한국기독교상담.심리치료학회, 『한국기독교 상담학회지』 제 3권 139-58.
- 최재락. (2004) "인격장애에 나타나는 병리적인 종교경험." 한국기독교상담.심리치료학회. 『기독교상담학회지』 제 8권 301-21.

최해림 (2006). "부모애착, 자기애, 신 애착의 관계," 서강대학교 학생생활 상담연구소, 「인간이해」 제 27집.

Adams, E. (1979) *A Theology of Christian Counseling*. Grand Rapids: Zondervan.

Anisworth, S. Blehar, C. Waters, Everett. & Wall, Sally .(1978) *Pattrens of attachment: A psychological study of the strange situation*. NJ: Lawrence Erlbaum.

Bowlby John. (1988). *A Secure base: Clinical Applications of attachment theory*. London: Routledge.

Bowlby, John. (1969). *Attachment and Loss* Vol. 1: *Attachment* (2nd ed.) New York: Basic book  
Original edition.

Bowlby (1980). *Loss: Sadness and Depression*. NY: Basic.

Bowlby (1976). *Separation: Anxiety and Anger*, New York: Basic.

Crabb, Lawrence (1977). *Effective Biblical Counseling*. Grand Rapids: Zondervan.

Collins, Gary R. (1998). *Biblical Basis of Christian Counseling for People Helpers*. Grand Rapids: NavPress. 85-87.

Collins, Nancy L. & Read, Steph. Collins, Garey R. (1994). *Helping People Grow: practical Approaches to christian Counseling*. Ventura: Vision House, 1982.en J. Cognitive representations of attachment: The structure and function of working models. In K. Bartholomew & D. Perlman (Eds.), *Advances in personal relationships: Vol. 5. Attachment processes in adulthood*. London: Kingsley.

Kirkpatrick, A. (2005) *Attachment, Evolution, and the Psychology of Religion*. NY: Guilford.

Kirkpatrick Lee A. (2008). Attachment and Religious Representations and Behavior, Judy Cassidy & Phillip R. Shaver, in *Handbook of Attachment: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Applications* (eds.). New York: Guilford.

Kagan, Jerome (1984). *The Nature of the Child*. New York: Basic.

Mangano, Mark J (2008). *The Image of God*. Lanham, MD.: University Press of America.

Roberts, R. C. (2002). "Attachment: Bowlby & the Bible." In Todd H. Speidell(Eds.), *On Being a Person: A Multicisiplinary Approach to Personality theories*. Oregon: Cascade.

Slade, Arietta (1999).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 Implications for the theory and practice of individual psychotherapy with adults." In J. Cassidy & P. R. haver(Eds.), *Handbook of attachment: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implications*. NY: Guilford.

Wesley, John. (1991). *The Works of John Wesley* VI. Peabody: Handrickson.

Zievertz, Hans-Georg.. (2001). Friedrich Schweitzer, Hermann Häring & Don Browning, (eds.). *The Human Image of God*. Boston: Brill.

Anisworth, Mary D. S. (1985) "Attachments across the life span." *Bulletin of the New York Academy of medicine*,61(9). 792-812.

Bartholomew, Kim & Horowitz, M. (1991) "Attachment styles among young adults: A test of a four-category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2). 226-244.

Back, Richard. (2006). "God as a Secure Base: Attachment to God and Theological Exploration." *Journal of Psychology and Theology* 34(2) 125-32.

Beck, Richard & Mcdonald, Angie. (2004). "Attachment to God: The Attachment to God Inventory Tests of Working Model Correspondence, and An Exploration of Faith Group Differences." *Journal of Psychology and Theology*, 32(2), 92-103.

Bretherton, Inge. (1992) "The Origins of Attachment Theory: John Bowlby and Mary Ainsworth," *Developmental Psychology*, 28, 759-775.

Collins, L. & Read, J. (1990). "Adult Attachment, Working Models and Relationship Quality in Dating coup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644-663.

Fonagy, Peter. Steele, Howard G. & Steele, Miriam. (1991). "Maternal representations of attachment

- during pregnancy predict infant–mother attachment patterns at one year." *Child Development*, 62, 891–905.
- Granqvist, Pehr (1998). "Religiousness and perceived childhood attachment: On the question of compensation or correspondence." *Journal for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37, 350–67.
- Granqvist, Pehr & Hagekull, Berit. (1999) "Religiousness and perceived childhood attachment: Profiling socialized correspondence and emotional compensation."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38(2), 254–273.
- Granqvist, Pehr. (2002). "Attachment and religiosity in adolescence: Cross-sectional and longitudinal evaluation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8, 260–70.
- Granqvist, Pehr & Hagekull, Berit. (2003). "Longitudinal predictions of religious change in adolescence: Contributions from the interaction of attachment and relationship statu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20(6), 793–817.
- Hazan, Cindy & Shaver, Phillip (1987). "Romantic love conceptualized as an attachment pro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3), 511–24.
- Hazan, Cindy & Debra Zeifman. (1994). "Sex and Psychological Tether." *Advance in Personal Relationships* 5. 17–52.
- Hamilton, Claire E. (2000). "Continuity and discontinuity of attachment from infancy through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71(3), 690–94.
- Kirkpatrick, A & Shaver, R (1990). "Attachment theory and religion: Childhood attachment, religious beliefs, and conversion."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29, 315–34.
- Kirkpatrick, & Shaver, (1992). "An attachment–theoretical approach to romantic love and religious belie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8, 266–275.
- Kirkpatrick, (1992). "An Attachment–Theory Approach to the Psychology of Religion," *the International Journal for the Psychology of Religion*, 2(1), 3–28.
- Kirkpatrick, (1997). "A Longitudinal study of changes in religious belief and behavior as a function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adult attachment style,"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36(2), 207–217.
- Kirkpatrick, (1998). "God as a substitute attachment figure: A longitudinal study of adult attachment style and religious change in College student."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4(9), 961–73.
- Krause, M. & Haverkamp, E." Attachment in Adult Child–Older Parent Relationships: Research, Theory, and Practice."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75(2), (Dec, 1996): 83–92.
- Mallinckrodt, Brent. Gantt, Diana L. & Coble, Helen M.( 1995). "Attachment patterns in the psychotherapy relationship: Development of the Client Attachment to Therapist Scal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 42(3), 307–17.
- Main, Mary., Nancy Kaplan & Jude Cassidy. (1985). "Security in Infancy, Childhood and Adulthood: A Move to the Level of Representation."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0. 66–104.
- Matas, Leah., Richard A. Arend & L. Alan Sroufe. (1978). "Continuity of Adaptation in the Second Year: The Relationship Between Quality of Attachment and Later Competence." *Child Development* 49. 547–56.
- McDonald, Angie., Richard. Beck, Steve Allison & Larry Norsworthy. (2005). "Attachment to God and Parents: Testing the Correspondence vs. Compensation Hypotheses." *Journal of Psychology and Christianity* 24(1). 21–28.
- Miner, Maureen H. (2007). "Back to the basics in attachment to God: revisiting theory in light of theology." *Journal of Psychology and Theology*, Vol 35, 112–22.

- NICHD Early Child Care Research Network. (1997). "The effects of infant child care on mother–infant attachment security: Result of the NICHD study of early child care," *Child Development*, *68*, 860–79.
- Phelps, L. Belsky, Jay & Crnic, A. (1998). "Earned security, daily stress, and parenting: A comparison of five alternative models."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10*,(1) 21–38.
- Reinert, Duane F. (2005). "Spirituality, Self–representations, and Attachment to Parents: A Longitudinal Study of Roman Catholic Seminarians," *Counseling and Values*, *49*, 226–236.
- Roisman, I., Keren Fortuna & Ashley Holland (2006) "An Experimental Manipulation of Retrospectively Defined Earned and Continuous Attachment Security." *Child Development* *77*. 59–71.
- Shorey, S. & Snyder, R. (2006). "The Role of Adult Attachment Style in Psychopathology and Psychotherapy Outcomes."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10*(1), 1–20.
- Waters, Everett. Merrick, Susan K. Treboux, Dominique. Crowell, Judith & Albersheim, Leah. (2000) "Attachment security in infancy and early adulthood: A twenty-year longitudinal study," *Child Development*, *71*, 684–89.
- Weinfield, Nancy S., L. Alan Sroufe & Byron Egeland. (2000). "Attachment from Infancy to Early Adulthood in a High-Risk Sample: Continuity, Discontinuity and their Correlates." *Child Development* *71* 695–702.